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14일 (음력 10월 27일) 목요일

담양군, 전국 최초 한국전통정원 지역특구 추진

소쇄원 · 식영정 · 죽화경 · 죽녹원 등 포함

국립 한국전통정원센터 유치에도 총력 예정

가사문학과 대나무의 본고장인 전남 담양군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한국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담양군은 13일 "조선시대 아름다운 민간정원으로 손꼽히는 국가지정 명승지인 소쇄원을 비롯해 식영정, 명옥헌 원림과 전남도 제2호 민간정원인 죽화경, 대숲과 정자문화가 조화를 이룬 죽녹원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전통정원 지역특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원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연구책임자 송태갑)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설문결과 한국 전통정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정원으로 소쇄원이 꼽힌 점도 넉넉이 반영됐다.

이에 군은 소쇄원을 비롯해 명옥헌원림, 식영정 등의 별서정원을 포함,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담양의 29개소 누정(樓亭)에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과 공공기관의 정원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나무 정원, 편백 정원, 동백 정원 등 다양한 정원을 통해 문화와 관광자원을 만들고 담양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역사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담양의 여러 곳에 분포돼 있는 누정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전통정원 특구 지정을 통해 보전 관련 산업 발굴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정원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한국전통정원 모델개발과 해외 정원박람회 교류 등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 한국전통정원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원 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인문화 특구와 연계, 미래천년 '신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죽녹원 일대 군유지에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준공 목표로 '남도정원'을 조성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메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역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담양군은 2016년 인문학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5 · 18진상규명 특별법 제동…"실망스럽고 안타깝다"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13일 5 · 18단체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3면〉

김후식 5 · 18부상자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 없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특별법 통과가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양래 5 · 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여야가 합의를 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이사는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 · 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다"며 "이 때문에 5 · 18을 왜곡하는 목소리가 남아있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 · 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기왕이면 형사 처벌 등이 배제된, 완전하지 못한 동행명령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 · 18기념재단과 5 · 18 3단체(유족회 · 부상자회 · 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은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5 · 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뉴시스

Photo 漫評

상극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0일 열린 '제1회 김대중마라톤대회'에서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내빈들과 함께 출발 선상에서 있다 중년 여성이 던진 계란 1개에 오른쪽 뺨을 맞았다. 흘러내린 계란은 어깨까지 적셨다.

박 전 대표는 계란을 맞은 부위를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괜찮다, 내가 맞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마라톤 행사가 열린 장소인 목포는 박 전 대표의 지역구다.

계란을 던진 여성은 '안철수연대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계란 투척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안철수

유성엽